

일본, 전자소재 한국 투자 활발

경기도, 3사 3450만달러 유치 ... LCD 편광필름에 2차전지 분리막

일본이 한국에서 전자소재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경기도 투자유치 대표단은 11월30일 도쿄 TDK 본사를 찾아 페라이트 코어(Ferrite Core) 공장 건설과 관련해 1350만달러의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TDK는 평택 현곡산업단지에 전자파 차폐 및 흡수체 소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DK Korea가 생산하는 페라이트코어는 고성능정보통신기기와 차세대자동차, LCD(Liquid Crystal Display) TV 등에 사용된다.

LCD 편광필름 제조기업인 Sanritz와도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에 1100만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MOU도 체결했다.

Sanritz는 어연한산산단에 2002년 유창옵티컬이라는 회사명으로 진출해 최근까지 1200만달러를 투입해 2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 대표단은 11월29일 Asahi Kasei와도 현곡산업단지에 1000만달러를 투입해 2차전지 분리막 가공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2/01>